

신바람나서 일하는 터전으로 만들터…



(주)BTC 코리아 대표이사 신 영 현

귀사의 설립동기 및 제품에 대한 특징은?

컴퓨터용 Keyboard 및 주변기기에 대하여 기술개발을 통한 국제적으로 경쟁력있는 제품의 생산과 이를 국산화 함으로써 국내 산업발전에 이바지 해보자는 소박한 소망으로 출발했지요.

'88년 4월, 1억 6,000만원의 자본금으로 시작했는데 우리 전 종업원의 피땀어린 노력으로 올해 80억원의 매출액이 별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전직원이 “하면된다”하는 투철한 사명감을 갖고 일하고 있고 이러한 합심된 힘을 바탕으로 매년 200%의 매출신장률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한 첨단 스위치 제조공법을 100% 국산화하여 국내 컴퓨터 산업발전에 일익을 담당 하였으며, 나아가 이를 미국시장에 수출 함으로써 무역수지개선에 공헌한 바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제품은 무접점 전자식 키보드로써 기존 제품의 스위치 수명이 1000만회 정도인데 반

“나의 노력으로 보다 나은 주변 사회 건설”을 함으로써 기업의 사명을 다 할려고 합니다. 모든 것은 하늘로 부터 주어진 것이므로 열심히 하면 그 다음은 하늘이 알아서 할일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또한 무슨 일이든지 기회와 책임완수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 최저 5000만회에서 반영구적인 수명을 가진 키보드로서 고도의 신뢰성을 가진 제품이며 그 생산방법상의(자동화) 특징으로 국제 경쟁력에서 확고한 위치를 차지한 제품입니다.

사장님의 경영전략은 무엇입니까?

“나”를 위한 생각 60%, “남”을 위한 생각 40%만 하면 언제나 성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나의 고객을 위한 고려가 고객과 같은 입장에서 60%만 이루어진다면, 언제나 준비하고 확인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고객이 좋아하는 것은 무엇인가? 값싸고, 모양좋고, 품질좋은 물건을 정확한 시간에 받아보고 싶은 것이라고 생각하면 문제는 쉽게 풀어집니다. 항상 모든 문제를 “너”的 입장에서 가장 자연스럽게 풀어 나아가는 것이 경영 전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기술개발과 해외진출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인체공학적인 설계로 우리제품의 기술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부드러운 촉감, 완벽한 호환성, 불량률이 거의 없는 고도의 신뢰성을 갖는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가격에서 고급제품까지 다양한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것이지요.

현재 대만의 Behavior Tech Computer社와 기술제휴를 하고 있고 이러한 양질의 제품을 세계시장에 내놓기 위해서 미국의 판매기지로서 해외사무소를 개설해 놓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으로 관계당국에 하고 싶은 말은 무엇입니까?

중소기업경영자는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하면서 미래를 생각하는 실무부서의 우두머리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정책입안하시는 분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사항은 중소기업경영자들이 열심히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기업환경을 조성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또한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범세계적이고 체계적인 정보체계가 안보문제만큼이나 중요하게 생각해서 정보유통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현재 퍼스널 컴퓨터 업계는 대기업에 의해 운영되어온 것이 사실입니다만 이제부터는 중소기업으로 이전시켜서 국제적 경영능력을 키워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한 정책적인 여건을 하루빨리 조성해 나아간다면 주변국가 보다 월등히 잘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중소기업의 어려움 중 하나가 인력수급인데 이것은 어떻게 해결합니까?

대우에 관계없이 중소기업을 기피해 고급인력 확보는 어렵습니다. 자체에서 사람을 키워서 쓰는 수밖에 없지요.

정기적으로 2~3명씩 국내 또는 해외연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땀을 흘리

고 이 만큼 성장한 만큼 보람을 느낍니다.

기업경영에서 가장 큰 애로사항은?

고도의 기술들이 하루가 다르게 변화해 나아가는데 이에 대한 대처능력이 제일 어려운 문제라고 봅니다.

틀에 맞는 옷을 자주 바꾸어 입혀 주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종종발생하면서 더구나 요즘처럼 소비자 요구도 다양하고 시장도 다변화 되어서 한꺼번에 두마리 토끼를 쫓아야 할 입장이라 제조업이 더욱 힘든 모양입니다. 경영자와 종업원이 슬기롭게 풀어야 할 사항입니다.

사장님의 경영철학은?

“나의 노력으로 보다나은 주변사회 건설”을 함으로써 기업의 사명을 다 할려고 합니다. 모든 것은 하늘로부터 주어진 것이므로 열심히 하면 그 다음은 하늘이 알아서 할일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또한 무슨 일이든지 기회와 책임완수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조업이라는 것은 소비자들의 신뢰를 얻어야 성공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좋은 물건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귀사의 향후 사업계획과 전망은?

저희 회사는 2000년도에 총매출 2,000억원을 목표로 컴퓨터 관련 주변기기 전문업체로서 기술혁신과 생산성 향상으로 혁명적인 영업전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와 같은 성장력으로 나아가면 얼마든지 가능하리가 생각되며 회사는 그 조정만을 칠하고 종업원이 신바람나서 일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주면 되리라고 봅니다.

성실한 사람들의 집단을 신바람나서 일하는 터전으로 만드는 것입니다.